

당시로서는 표정이 풍부하고 시적 정서가 가득한 음악 세계를 담고 있으며, 고전주의에서 초기 낭만주의로 변모해 나가는 슈베르트 스타일로서 슬픔과 열망의 깊은 감정들을 표현해 내고 있다. 또한 곡의 비극적 악상은 슈베르트의 건강 -이 시기에 매독에 걸렸다고 한다- 과 관련되어 있을 감정의 혼란까지도 반영하고 있다. 브루크너의 마지막 교향곡이 3악장의 미완성으로 끝났지만 이어지는 악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완전무결한 것처럼, 이 작품 역시 '미완성'이라는 제목과는 다르게 애호가들은 완벽함을 느낀다. 그만큼 이 두 개의 악장은 슈베르트의 짧은 생애와도 관련지어, 절망적 상황에서도 뚜렷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지극히 높고 깊은 수준의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초기 낭만파 음악의 금자탑과도 같은 작품이라 할 것이다.

슈베르트의 이전 교향곡들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b단조의 비교적 간단한 소나타 형식의 1악장은 작곡기법의 거대한 진전이자 관현악적으로도 강렬한 악장이라 할 수 있다. 첼로와 콘트라베이스의 최약주(pp) 유니즌(unison, 같은 음 혹은 멜로디를 연주) 연주에 의하여 어두운 분위기로 개시하는데, 이 도입부 동기는 곡 전체, 특히 발전부에서 중요하게 나타난다. 이어서 바이올린의 16분 음표와 저음현의 피치카토(pizzicato, 현을 손가락으로 뜯어 연주) 위로 널리 알려진 선율이 오보에와 클라리넷으로 연주되는데, 이 첫 번째 주제에서 호른의 반향 역시 인상적이다. 바순과 호른의 짧은 경과부 후 당김음의 반주를 달고 첼로에 의해 온화한 주제가 포근하게 등장한다. 이러한 주제들을 변형, 발전시키며 곡은 극적인 흐름으로 나아가 때론 부드럽게, 때론 광폭하게 변하다 마지막에 이르러 묵직한 화음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1악장이 탄식과 분노였다면 E장조의 2악장은 정화된 아름다움이 가득하다. 1악장이 동기들의 발전으로 진행되는 것에 비해 2악장은 서정성을 품은 선율의 흐름이 우선이다. 은은한 콘트라베이스의 피치카토 위로 연주되는 호른과 바순의 화음에 의한 두 마디 도입 이후 제1바이올린이 순수함이 돋보이는 주제 선율을 울린다. 이 악장은 처음부터 141마디까지 두 번 반복하고 여기에 코다(coda, 곡을 끝내기 위해 추가된 종결부)가 붙은 형식으로도 볼 수 있는데 낭만적 정취는 물론 슈베르트의 수수한 대위법도 엿볼 수 있다. 악상이 너무나도 아름다우며 곡은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마무리된다.

루트비히 판 베토벤 (1770-1827)

교향곡 5번 c단조, Op. 67 (1808)

베토벤은 3번 교향곡을 완성하던 1803년에 본 작품을 구상했으며 1804년에는 구체적인 스케치까지 그려 넣었다. 이 시기부터 5번 교향곡을 완성하는 1808년까지는 베토벤 창작의 중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명성은 더욱 확고해지며 경제적 안정은 물론 창작력도 강렬해지던 때였다. 오페라 <피델리오>의 첫 판본, '열정' 소나타, 피아노 협주곡